

무주구천동 가을 축제 열린다 장수한누리전당 재정비 탄력

25~26일 어사길 걷기 탐방 행사·낙화놀이·공연·체험 등 개최

오는 25일부터 26일 양일에 걸쳐 '어사길 걷기'와 함께 하는 무주구천동 가을 축제'가 개최(주최: (사)무주군관광협의회 주관: 관광연합회, 상인연합회) 된다.

이번 축제는 구천동의 수려한 단풍과 계곡 풍경을 마주하며 다양한 공연·체험·탐방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25일(17:30~)에는 무주구천동 계곡 일대 구 탐방센터 앞에서 노래 "그대 그리고 나"의 주인공 '소리새'가 주축같은 음악을 선사하며 '무드등 만들기'와 '자개 체험' 등이 전통 체험도 가다린다.

저녁 6시 30분부터는 안성두문마을 낙화놀이보존회가 선보이는 '낙화놀이'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낙화(落花)놀이는 물 위에서 즐기는 전통 불꽃놀이로, 떨어지는 불꽃이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서 불리게 된 이름이다. 한지에 쏙과 솜, 소금을 넣어 만든 낙화봉을 긴 줄에 매달아 불을 붙이면 그 줄을 타고 이어지는 불꽃이 장관이다.



무주구천동 33경 20경 디엔대.

무주군 안성면 두문마을(두문마을 낙화놀이보존회)에서는 2006년부터 낙화놀이를 복원하기 시작해 2016년 전 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지정상을 받았으며 해마다 무주반딧불축제를 통해 명성을 쌓고 있다.

26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무주 구천동 어사길 걷기 탐방 행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코스 내 체험 부스에서는 '도자기 열쇠고리 만들기'와 '가훈 써

주기' 등의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운승 (사)무주군관광협의회 회장은 "이번 축제는 무주구천동의 단풍과 계곡, 그리고 낙화 불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무주의 가을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시나브로 물들어 가는 가을, 무주에서 좋은 음악과 자연이 선사하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 금강수계 특별지원 공모 선정... 복합문화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장수군이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상수원관리지역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기금 10여억 원의 특별지원기금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은 대청댐 상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제도로 심사위원회의 현장조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성이 검증된 사업만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장수한누리전당 복합문화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체 공모 사업 17개 사업 가운데 장수군 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이 선정됐다.

'장수한누리전당 복합문화시설 현대화사업'은 2026년도에 기금 10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건축물 내·외부 리모델링, 방난방 시스템 교체, 수처리·전기·통신 설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한누리전당은 2007년 개관 이후 18년간 장수군의 대표 문화·체육시설로 사랑을 받아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안전성과 편의성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방난방과 수처리, 전기·통신 설비 등 주요 인프라가 낡았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수군은 이번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장수한누리전당은 친환경 에너지 설비와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갖춘 지역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서 장수한누리전당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재정비되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체육·여가 공간을 포함해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건축물 내·외부 리모델링, 방난방 시스템 교체, 수처리·전기·통신 설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진안군은 오는 22일 오후 2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안전한국훈련'은 발생 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비해 초기 대응능력과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 훈련이다.

훈련은 진안군을 비롯해 진안소방서, 진안경찰서, 육군 제7733부대,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사, 군산도시가스, KT북전주지사, 자원봉사센터 등 12개 기관 및 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여하며, 장비는 40여대가 투입될 예정이다.

훈련은 지진이 발생하여 다중이용시설이 붕괴되고 대형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며, 사고



발생 후 인명구조 활동, 구조 및 구급,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실제와 같이 훈련한다.

특히 훈련에서는 토론회(군청 재난상황실)와 현장훈련(진안홍삼한방센터)을 동시 진행함으로써 실시간 대응 역량을 점검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국민체험단 운영으로 재난 대응 훈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공연장 상주단체 '예술담은나라' 공연 성료

장수군 공연장 상주단체인 (사)예술담은나라(지휘 이대정장, 이하 예술담은나라)의 네 번째 공연인 '노래하는 장수하늘소'가 지난 15일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은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온 예술담은나라의 상주단체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로 군민과 함께한 음악 여정의 대미를 장식했다.

특히 '노래하는 장수하늘소'라는 제목의 신곡을 성악가와 관객이 함께 부



르며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공연은 색소폰 연주자 손준양의 감미로운 '헤이주드', 베이스바리톤 박순기의 유쾌한 '사랑의 묘약'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구성돼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풍성한 무대를 선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관광협의회, 진안 관광 인사이트 아카데미

(사)진안군관광협의회는 오는 11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진안 산악초터운 2층 세미나실에서 마리아카데미 1기 '진안관광 인사이트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진안의 자연·문화·로컬자원을 기반으로 '나의 아이디어를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싶은 사람'이 대상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천형 관광 기획 입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11월 2일까지 가능하다.

교육 과정은 진안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관광 트렌드 분석과 전략 수립 분야에서 활약 중인 국내 관광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관광산업 전반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사)진안군관광협의회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관광산업의 다양한 트렌드와 아이디어를 진안의 관광 발전에 접목하고 지역민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의 기초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보육아동 한마음대회 개최

진안군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송인정)는 17일 진안군 어린이집 보육아동 135명이 참여하는 '2025년 진안군 보육아동한마음대회 - 초록 지구를 위한 작은 손의 약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9~10월 중 관내 6개소 어린이집 3~5세 유아들이 환경교육을 통해 오염 물질을 분해하고, 물과 토양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는 EM 흙공을 직접 만든 데 이어 하천에 던져보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직접 만든 재활용 피켓을 들고 환경보호 중요성을 알리며 진안시장 청년물까지 쓰레기를 주우며 걸었다.

플로깅 활동 이후 문화의집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된 환경 스토리텔링 공연은 친숙한 푸우캐릭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생태보존의 가치를 전했다. 공연 후에는 '푸우와의 포토타임'이 이어져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가 스마트 LED시스템 구축 추진

진안군, 과기부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선정

진안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3,8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4,000만원(국비 2억3,800만원, 군비 1억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촌 현장에 보급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진안군은 지난 2월 '이상기상 대응 시설하우스 일사량 감응 스마트 LED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해 최종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농촌 현장에 보급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진안군은 지난 2월 '이상기상 대응 시설하우스 일사량 감응 스마트 LED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안해 최종 선정의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 LED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시설하우스 내 일사량 감소로 작물 생육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온·습도, 조도 등 환경센서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부족한 광량을 자동으로 제어·보광하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지는 총 5,000㎡ 규모이며, 군은 이상기상(저일조)으로 광 환경 조건이 불리한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중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농어촌종합지원센터, 적상면에 활력 불어넣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2년 차 추진

무주군 적상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주관하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올해 2년 차를 맞아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로 적상면 전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농촌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스스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먼저, 사업의 거점은 적상면 삼락플러스센터(서창로70)다. 이 센터는 '생생마을관리소'로 지정되어, 사회서비스 코디네이터 2명이 상주하며 적상면 25개 마을을 순회하며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곰고미 활동가'(마을복지활동가)들의 활약이다. 곰고미 활동가들은 주 1회 서비스 계획을 논의하고, 경로당과 가정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역이다.

서비스 진행 시 서비스 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1인 팩(진행 강화물)', '곰목의자', '목베개' 등 자체 제작한 강화 물품을 함께 전달하며 순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